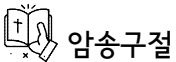


너는 시냇가에

*반주음원QR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민 17:5)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트랙터 가정예배문

원망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민수기 17:1~13)



1 함께 찬양하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 445장)

- 1)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 2)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 3)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후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반주음원QR



2 함께 본문 읽기

민수기 17:1~8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둘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 4)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 5)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둘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 8)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
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여성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1898~1978)는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에 서명한 24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69년부터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골다 메이어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약점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1960년부터 죽을 때 까지 18년 동안 림프종으로 암투병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불평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자신의 투병생활을 알리지 않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수상이 해야 할 일들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직분을 항상 귀하게 여기며 한평생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① 레위의 □□□에는 □□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 하나씩 있어야 할 것 임이니라

② 이튿날 모세가 □□□ □□에 들어가 본즉 □□ 집을 위하여 낸 □□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 □□가 열렸더라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최근에 나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행동을 했던 때가 있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 ② 3불(불평, 불만, 불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삶속에서 3불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나눠봅시다.

민수기 16장은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고나서 38년이 흐른 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3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16장에서 고라 일당이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에 대한 불만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17장에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과 아론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게 한 후, 그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지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아론의 권위를 높여주셨고, 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세우신 권위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3불(불평, 불만, 불신)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갇아먹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독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옛적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3불의 모습은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3불의 모습은 버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가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다가 때때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할 만한 상황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